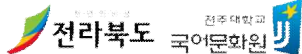


2023년 한글날 기념행사 「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」
「'고마워, 한글' 오행시 공모」 수상자 명단

■ 으뜸상(2명)

순	성명 (연령, 지역)	연락처	오행시
1	전*영 (20대, 인천광역시)	010-****-1224	<p>고: 마운 우리 한글에는 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.</p> <p>마: 음으로 백성을 생각한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부터</p> <p>워: 낙에 흥흥한 일제강점기에도 끝끝내 우리말을 지킨 독립 열사,</p> <p>한: 글과 함께 강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한국인들까지.</p> <p>글: 자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이야기,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.</p>
2	장*정 (40대, 충청북도)	010-****-0139	<p>고: 민 끝에 애민으로 창조된 훈민정음</p> <p>마: 지막 순간까지 말모이로 지킨 한글</p> <p>워: 드, 카페, 헤어, 스위트 우리말이 있어도 외국어를 남용하니</p> <p>한: 글 파괴현상에 마음이 아프다</p> <p>글: 자는 곧 그 민족이라는 정신 본받아 다시 한글을 사랑하고 지켜주자</p>

주최·주관



후원



2023년 한글날 기념행사 「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」
「'고마워, 한글' 오행시 공모」 수상자 명단

■ **버금상(5명)**

순	성명 (연령, 지역)	연락처	오행시
1	김*영 (40대, 전라북도)	010-****-9302	고: 등어가, 저기 저 고등어들이 마: 냥 하늘을 날고 싶은가 보다. 위: 그적위그적하며 지느러미를 부딪친다. 한: 없는 항쟁, “우리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싫어요!” 글: 쌍글쌍, 눈물 꺾 눈으로 뱃사람들을 본다.
2	정*은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5094	고: 글은 보안경 마: 일리지는 이용 실적 점수 위: 터파크는 물놀이 공원 한: 글날만큼은 외래어가 아닌 글: 자도 예쁘고 읽기도 쉬운 한글을 쓰는게 어떨까?
3	남*숙 (50대, 인천광역시)	010-****-5225	고: 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마: 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위: 낙 배우기 쉽고 훌륭한 한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한: 글 창제된 이래, 한글의 가치 아래에서 뭉쳐온 것 처럼 글: 로벌하게 뺏어가는 내일, 한글이 있기에 더욱 든든합니 다.
4	전*민 (20대, 인천광역시)	010-****-1003	고: 마운 농부 아저씨들은 마: 지막 낱알 한 톨도 허투루 얹기에 더욱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합니다. 위: 낙 과학적인 한글도,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. 한: 글의 올바른 사용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내일. 글: 로벌하게 뺏어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한글이 있습 니다.
5	최*준 (1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249	고: 대부터 역사를 바꾼 위인을 살펴보니 마: 법처럼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계셨다 위: 털루 전투의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가 되려했지만 한: 사람 한사람 백성을 섬기며 문자를 만들고, 과학을 발전 시켜 글: 씩이며 애통해하는 백성의 마음을 읽은 세종대왕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셨다

2023년 한글날 기념행사 「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」
「'고마워, 한글' 오행시 공모」 수상자 명단

■ **슬기상(10명)**

순	성명 (연령, 지역)	연락처	오행시
1	손*은 (50대, 전라북도)	010-****-4111	고: 맵다고 천 번을 말해도 마: 음으로는 다할 수 없는 한글 창제의 거룩한 뜻, 그리 워: 또 그리워 한 번 더 불러보는 그 이름 세종이시여! 한: 글이 있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글: 로벌 콘텐츠가 되어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.
2	한*리 (40대, 경기도)	010-****-7833	고: 령코롬? 그것이 무신 말이여? 마: 을 사람들이, 느그 동네 사람들은 다 쓰는 말이라고? 워: 씨 고행코롬 생겼다요? 그 말이고만. 하이고오매, 알긋어 라. 아니다, 아녀. 한: 국 사램이른 자기 고장 말을 쓸 줄 알아야제. 글: 이든, 말이든. 그것이 고향의 짠한 울림 아니겠냐?
3	구*빈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2426	고: 요하게 다가와 우리의 마: 음을 살며시 스쳐가기도 하고, 때론 워: 낙 무거운 마음을 담고 있기에 한: 없이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곤 한다. 글: 은 바로 이런 존재이다. 때론 잔잔하게, 때론 크게 요동 치며 우리의 마음에 여운을 남긴다.
4	하*운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9331	고: 향을 떠나려 길에 오르니 마: 중나와 나를 안아주시는 부모님 워: 낙 야원 몸을 보니 한: 없이 눈물이 맺힙니다 글: 그렇 거리며 나를 안아주시던 그품이 이제는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, 감사합니다
5	조*아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9181	고: 맵다는 말들과 소중한 마: 음을 수 많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. 워: 낙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아서 한: 마디만으로 글: 을 끝마쳐도 남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글자 이다.
6	이*원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1632	고: 생하여 만든 한글이 마음대로 변형되어 사용된다. 마: 음 아프게도 사람들은 그것또한 깨닫지 못 한다. 워: 그루루, 한글의 위상이 무너진다. 한: 글을 잘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: 을 씬으로써 이를 얘기해 본다

7	안*찬 (20대, 서울특별시)	010-****-9865	<p>고: 대부터 내려져 온 우리만의 언어</p> <p>마: 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 할 수 있는 글</p> <p>위: 낙 쉽고 쓰기도 편한</p> <p>한: 글의 이러한 우수성은</p> <p>글: 로 표현하지 못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</p>
8	최*준 (1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139	<p>고: 글자가 무슨 글자요?</p> <p>마: 음 먹으면 빨리 배워 읽고 쓸 수 있다고?</p> <p>위: 매, 워매 참 말이네.</p> <p>한: 글은 쉽게 읽고 쓰는 최고 문자구먼.</p> <p>글: 을 읽으니 내 이름자도 쓰고..참 좋네</p>
9	채*린 (10대, 전라북도)	010-****-6586	<p>고: 유어인 한우, 사과, 친구, 가족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글자를 만들어 주시니</p> <p>마: 음 깊은 말도 친구와 가족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</p> <p>위: 낙 위대하고 뛰어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</p> <p>한: 글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며</p> <p>글: 자 중에 단연 최고는 훈민정음입니다.</p>
10	채*도 (40대, 전라북도)	010-****-5057	<p>고: 얼마다 누구나 사용하는 정겨운 한글</p> <p>마: 음 담아 전하기 쉽고</p> <p>위: 낭소리 방울 소리 맑게 울려 퍼지듯</p> <p>한: 나라를 떠나 전 세계로</p> <p>글: 자들의 최고는 한글이네</p>

주최·주관  전라북도  전주대학교  국어문화원
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교육청  전주대학교  장승원

2023년 한글날 기념행사 「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」
「'고마워, 한글' 오행시 공모」 수상자 명단

■ **나래상(30명)**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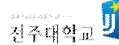

순	성명 (연령, 지역)	연락처	오행시
1	정*연 (4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077	고: 추장 마: 늘 워: 낙 한: 국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글: 썩이게 맵네요
2	이*은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9743	고: 생 많았어 ! 마: 법처럼 탄생해서 워: 씨 (어찌) 그렇게 한: 국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줬는지... 글: 로나마 전할게 고마워 한글아 !
3	정*혜 (40대, 전라북도)	010-****-3777	고: 향 생각나는 마: 음, 사람과 사랑을 올리는 워: 낭소리 가득하다. 한: 평생 자식을 위해 농사짓던 부모님 생각에 글: 썩이다 잠에서 깨어났다.
4	정*성 (5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770	고: 민만 하다가 마: 감일이 코앞에 다가왔다. 워: ~워~ 마음을 진정시키니 한: 순간에 글: 맛 가득한 우리말 원고가 완성되었다.
5	한*섭 (40대, 경기도)	010-****-2805	고: 군분투 하며 열심히 사는 내인생 마: 늘님의 채찍질은 끈길줄 모르고 워: 메 한: 많은 내마음 글: 로라도 풀어야재
6	김*정 (30대, 경기도)	010-****-7424	고: 고스뜨 무이뜨 드뜨(포르투갈어) 마: 마할 키타(필리핀어) 워: 워아이니(중국어)는 한: 한국말로 '사랑해' 글: 글로 적어보니 역시 우리말이 제일 멋져!
7	문*선 (50대, 전라북도)	010-****-3071	고: 즈넉한 한 마을에, 마: 음이 선한 사람들이 모여, 워: 낭 소리를 벗 삼아, 한: 가로이 시간을 보내면서, 글: 을 쓰며 감사한 삶을 산다.

8	김*환 (10대, 전라북도)	010-****-2451	고: 마워 한글! 마: 음을 다해 사랑할게 한글! 워: 싱턴에서 한글을 홍보할게 한: 글을 만든 한사람한사람을 기억하고 글: 씨체 똑바로 쓰면서 사랑할게 한글!
9	김*수 (30대, 전라북도)	010-****-5800	고: 관절 마: 디마디가 썬시네 워: 메 한: 스러운 내몸똥아리 글: 러먹었네...
10	김*비 (20대, 경기도)	010-****-8606	고: 감사합니다. 마: ! 고맙습더 워: 메~ 고마부러~ 한: 글을 지켜주니까네 글: 로 쓸 수 있는 날이 왔지에~
11	윤*영 (20대, 서울특별시)	010-****-8586	고: 된 연구를 거듭하다 마: 지막에 나온 한글은 워: 글워글 거리는 한: 나라의 백성들에 글: 이 되었다
12	정*현 (40대, 전라북도)	010-****-7185	고: ~이 접어둔 마: 음을 꺼내 오늘은 얘기할래요 워: ~낙 가까이 있어 평소 전하지 못했던 바로 그 말을 한: 자 한자 또박또박 글: 로 써서 말할래요."고마워 한글! 사랑해 한글! 네가 자랑스러워 한글!"
13	마*수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7445	고: 진감래의 끝 한글 마: 부위침하며 만든 한글 워: 낙 백성을 사랑했기에.. 한: 글을 창시하시고 글: 을 쓸 수 있게 하셨다.
14	공*후 (20대, 경상남도)	010-****-2534	고: 마워, 너의 탄생에 마: 음깊이 생각할게 워: 대한 한: 글야 글: 자체도 참 이쁘다
15	박*현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7859	고: 민으로 생각이 가득 차버려 글이 써지지 않을때라면 마: 음속을 비워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워: 낙에 어려운지라 잡념에 사로잡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한: 번 해본다면 개운해지고 머리속이 상쾌해질테니 글: 을 쓰는데에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들게 해줄것이다
16	송*홍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481	고: 민이 있어 마: 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이야 워: 낙 쉽지않은 결정이었어 한: 이 땀히더라도 글: 로 전달하기 싫었지만 사랑했다.

17	허*연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6577	고: 민하지 말고 하고 싶던 것이 있으면 마: 음껏 해보고 싶다. 워: 낙 요즘 세상이 돈 벌기 힘들어서 그런가 해보고 싶던 거 한: 번도 못해보고 살 것 같네 글: 러먹은 세상
18	강*호 (3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844	고: 려시대 사람들은 마: 음을 서로 전달하지 못했다. 워: 낙 한자가 어려우니까 한: 글을 배운 우리는 글: 로 감사함을 전한다 '고마워 한글'
19	장*인 (10대, 전라북도)	010-****-2786	고: 마워 이제서야 마: 음을 전해줄게, 너를보면 워: 르르 무너지는 나를봐 한: 번 나를 바라봐 줄순 없을까? 글: 로 전할수 없는 나의 마음을.
20	김*영 (10대, 전라북도)	010-****-7527	고: 백이 맞지만, 마: 지막이니까 들어줘 워: 낙 아름다운 너는 왜 한: 행성에 한 명밖에 없을까 글: 세,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닐까?
21	고* (20대, 전라남도)	010-****-5282	고: 고라복이라는 선교사는 마: 마을 한 곳에 학교를 설립한다 워: 워낙 넓은 땅에 펼쳐진 매화꽃 한: 한국의 기독교 학교이자 일제강점기에도 글: 글을 가르치려 노력했던 순천의 매산등
22	남*우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655	고: 요한 시골 마: 을에서 들려오는 워: 낭소리도 한: 글이라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글: 자로 표현이 가능하다
23	한*하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7069	고: 만고만 했던 우리들이 마: 음을 나눌만큼 어른들이 되고있네 워: 라벨을 외치며 바쁘게 살겠지만 한: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지 글: 씨 뽀뽀할 때 만난 우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게 어때?
24	김*경 (20대, 부산광역시)	010-****-5989	고: 깃집에서 혼자 마: 지막 술잔을 기울였다. 워: 낙에 힘던었던 하루였던지라, 한: 잔을 다 비우니, 눈물이 글: 썩었다.
25	장*숙 (40대, 전라북도)	010-****-2719	고: 살길로 숨어 들어갔다 마: 구간으로 들어갈까 했다 워: 낭 소리에 들킬세라 나름 머리를 쓴 거다 한: 오 분만 버티자 글: 세, 오늘은 절대 술래가 될 수 없다고!

26	장*원 (4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249	고: 사리같은 손으로 가나다 꼭꼭 쓰며 마: 음 속 간직한 생각을 표현하는 한글 위: 낭소리 정겹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한: 없이 그리운 마음 담아 글: 로 안부를 전한다
27	최*호 (4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249	고: 즙직한 시골에 노을빛 단풍이 물들고 마: 을 곳곳엔 풍요롭게 가을걷이를 한다 위: 낙 바쁘게만 살아오던 내 삶이 한: 순간 멈춘 듯한 자연의 풍경에 취해 글: 썩이며 여유를 묻는다
28	이*구 (30대, 전라북도)	010-****-0586	고: 된세월 버텨냈고 마: 구잡이 난도질이 있었던 그 시절 위: 낙 훌륭한 기술력이 돋보였기에 한: 글을 없애려 했던건 아닌지.. 글: 로만 배웠지만, 지금까지 지켜온 삶을 잊지않을께, 고마워 한글!
29	노*현 (20대, 전라북도)	010-****-7900	고: 새를 못 참고, 또또또! 마: 가 켜는가배, 자꾸 왜 사재끼는겨! 위: 따, 참말로. 어디 쓸데도 없는 것을 저만치나 사왔디야! 한: 량도, 한량도, 조선 천지에 이런 한량이 없어야, 참말로! 글: 피에 장 서면 저저 한량 먼저 팔아버리든가 해야지, 원
30	이*희 (10대, 충청북도)	010-****-0139	고: 생해서 만들었고 마: 음을 다해 만들었다 위: 낙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서 한: 사람만을 위한것이 아닌 모든 백성을 위한 글: 이 되었다

주최·주관  전라북도  전주대학교
국어문화원

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교육청  전주대학교  장승로